

東南亞 巡訪記

白 樂 昇
(大韓酒類工業協會·會長)

滿 17日間の 旅程을 마치고 酒類工業全般에 関한 여러나라들의 実情을 走馬看山格으로 둘러보고 느낀 것을 간추려 本誌에 실어본다.

東南亞訪問이 처음인데다가 單身으로 돌아다녔던 關係로 보다더 具體的이고 核心的인 事項을 把握하지 못한 點을 못내 아쉽게 여기면서 우리나라의 오늘의 酒類工業 現實狀況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參考가 될 수 있는 資料가 담겼으면 하는 生覺으로 要約 記載하는데 努力을 했다.

澳 洲(AUSTRALIA)

나리다 國際空港을 20時 30분에 離陸해서 밤새 飛行하여 새벽 6時에 濠洲 中東部 海岸都市인 Britsban에 着陸 이곳에서 transit 하여 다시 離陸 Sydney에 到着하니 아침 8時 50分이다. 비록 Britsban에서 1時間 程度를 지체했다고 하더라도 無慮 11時間에 가까운 飛行을 했다는 것이 心身의 疲勞를 느끼기에 充分한 것이다. 手續을 마치고 hotel에 旅裝을 풀니 벌써 10時가 된다. 오늘의 計劃은 午後 1時에 CSR Distilleries 本部에서 幹部들과 만나 人事를 交換하고 간단한 略式점식 食事を 마친后 Pymont Distillery and Refinery를 訪問한다고 한다. 飛行機에서 充分히 잠을 잔것으

로 計算하고 그대로 強制招待를 하는 것 같다.

率直히 말해서 飛行機 안에서 마음놓고 熟寢한다는 것이 本人의 경우는 거의 不可能한 일이라 事처 깜빡깜빡 하는 것이지 거의 한잠 못 잤다고 하는 것이 옳은 表現일것 같다. 如何든 CSR 幹部들과 會議室에서 人事를 나누고 簡單한 現況을 들은 뒤 cocktail점 lunch 를 함께 했다. 自己 会社에서 만드는 rum酒를 소개하는데 맛을 보니 제법 쓸만하다.

晝食이 끝나고 計劃대로 Pymont Distillery and Refinery를 찾는다.



(Pymont Distillery and Refinery)

正門에서 보니 우리의 酒精工場보다는 조금 정도이지만 엄청나게 큰 貯藏 tank가 많은 것이 다른 點이라 할 수 있었다. 이 tank가 부

두와 直接 pipe로 連結되어 있어 배로 실어오는 molasses (糖蜜)를 받아 貯藏하는 tank라고 한다.

우선 工場長 David, T. Porter를 만나 人事를 나누고 工場施設부터 見學을 한다. 工場長 말에 依하면 濠洲는 原来 사탕수수가 大量 生産되는 관제로 처음 CSR가 손을 댈 것이 sugar industry였다고 한다. 1878년에 發促되었다고 하니 105년의 歷史가 흐른 것이다. 이곳 distillery는 聯關産業으로 1901년에 設置되었다고 한다. 天惠의 良港을 바로 앞에 두고 北部 原產地에서 molasses를 받아 貯藏하고 이를 蒸溜시켜 酒精을 만들고 또 rum酒를 生産하는 것이 벌써 82년째라고 한다. 工場建物は 當時의 材木 그대로에다가 部分的인 補修만 한 것으로 特히 rum酒를 만들고 있는 大型 나무통은 83年前의 것을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異彩로왔다. Section別로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쉬는 時間이나고 물었더니, 現在 이 工場은 가동중에 있으며 모든 運營機能은 中央 control room에서 한 사람의 技能士가 專担하고 있으며 computer화된 計器点檢으로 完全 自動化된 system을 導入運營하고 있다고 말해준다. 保守와 革新의 調和라고 할까, 사람 求하기가 어려운 濠洲의 現實 여건에서는 適切한 運營方法이 아닌가 느껴진다.



〈Rum酒 貯藏庫〉

工場 内部를 다 돌아보고 rum酒가 貯藏되고 있는 貯藏庫를 둘러보았다.

저장期限은 平均 2~3年이라고 한다. 그以上 成熟시켜서 世界市場에 良質의 競争商品을 내놓을 뜻이 아직은 없는 것인지 아리송한 답변이다. 事務室로 돌아와 現在 우리가 겪고 있는 公害問題에 처한 얘기를 나누었다. 우리나라는 molasses의 公害問題 때문에 政府規制에 依해 現在는 使用치 못하고 있으며, 고구마, 보리, 그리고 tapioca 등의 澱粉質 原料와 粗酒精 등을 主原料로 사용하고 있는 實情인데 이 자리는 바로 바다가 接한 位置인데다가 市中心에 자리를 잡고 있고 molasses만을 原料로 사용하고 있으니 폐수處理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質問을 해보았다. 工場長 말에 依하면 公害문제는 molasses의 경우 무엇보다 colour pollution이 큰 문제라고 한다. 現在는 Sydney市 当局이 市 全体的 폐수를 處理하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作業을 하고 있다고 한다. 郎 各己 自身들의 工場 폐수를 指定된 基準値 以下로 處理하고 이것이 市の 公共 pipe로 連結되어 바다 3~4km 距離의 밑바닥에 噴出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고 한다. Molasses는 original colour가 진하기 때문에 漂白劑를 使用한다 하더라도 엷은 紅茶程度의 색깔은 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漂白劑를 使用할 境遇는 그 費用이 엄청나기 때문에 試圖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現實情이라고 한다. Sydney港은 水深이 깊고 無限에 가까운 엄청난 大洋으로 連結되어 있는 데다가 深海 깊숙한 곳에 壓力으로 噴出시키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는 것이 公害의 問題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고기의 營養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궁색한 答辯인지 슬쩍 웃어넘기면서 말하는 것이 問題가 없는 것만은 아닌것 같은 印象을 준다. 現實적으로 우리나라는 폐수 處理가 個別会社의 責任으로 되어 있고 官은 直營乃至는 下請의 形態로 폐수 및 人糞을 処

理하고 있으나 時間이 흐르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우리도 酒精稅수를 官과 協助하여 共同 處理하는 方案을 檢討 採択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生覺해보면서 Pymont Distillery and Refinery 訪問을 마친다.

CSR의 酒精部에서 主催하는 저녁 cocktail에는 Sugar Division의 幹部 및 National Australia Bank 그리고 Japan and Asia Westpac Banking Corporation의 manager가 자리를 함께 하였다. 서로의 人事가 끝나고 party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에 平素 本人이 느끼고 있던 몇 가지 얘기를 했다.

첫째 우리나라는 CSR에서 輸入하는 相當量의 粗酒精으로 이를 精製하여 燒酎 및 其他 酒類를 만들어 마시고 있으며 또한 濠洲産 소고기를 輸入해서 한국 特有의 불고기料理로 口味를 돋구며 濠洲産 wool로 衣類를 만들어 입고 그외에도 石炭 및 鐵鉱石 등 많은 一次産品을 輸入하고 있으나 貴國은 우리나라에서 사가는 것이 3分の 1에도 못미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貿易逆調를 是正하기 爲한 努力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다.

Sugar Division의 Deputy General Manager Dr. Mouro가 말하기를 現在 CSR에서는 韓國의 現代造船에 2萬 4千噸級의 船舶 造船 契約을 체결하였으며 來年 4月頃에는 이배가 進水될 予定이라고 하면서 自己네들도 加급적 우리나라와의 經濟協力 關係維持 및 改善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 事實이라고 說明을 한다.

大端히 고무적이고 반가운 消息이 아닐수 없다. Cocktail에서 쓰는 술을 보니 liquor 種類는 生疏하지 않으나 麥酒種類는 처음 보는 것들이다. LA라는 商標의 麥酒는 2.5% alcohol 나머지 大部分이 4.9%의 度数이다. 한가지 特異한 것은 Export Light라는 麥酒와 類似한 것이 있는데 實際 alcohol成分은 없고 맛, 색, 거품 등이 麥酒와 흡사한 음료가 있다. 아마 自己 自身이 直接 運轉을 하기때문에 氣分

은 내고 술은 醉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東洋麥酒에서 NAB라고 하는 alcohol이 舍려없는 麥酒와 흡사한 飲料를 만들어 中東쪽에 輸出한다고 들었지만 市販이 되지 않아서 맛을 보기는 이골 Sydney에서 먹어본 Export Light가 처음이다.

日本의 麥酒는 4.5%인데 濠洲産 麥酒의 alcohol 含有量은 各樣各色인 것이 特色이라 할 수 있겠다.

Party가 끝날무렵 CSR distillery의 副社長 Dr. Haks가 來年度의 우리나라 粗酒精需要 展望을 물어온다. 大端히 어렵고 不確實한 答辯이 될 수밖에 없다고 前提하고 tapioca보다 粗酒精價格이 싸지면 增加할 것이고 現在와 같이 계속 비싸진다면 오히려 今年보다도 粗酒精의 需要는 줄어들것이지 아닌가 라고 答한다. 그리고 추가해서 今年度 泰國의 tapioca 作況이 좋다고 듣고 있으며 來年初에는 tapioca 값이 약간은 떨어질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니 現在의 molasses 國際時勢는 계속 오르고 있어 來年度 粗酒精의 價格은 크게 내릴 展望이 없는것 같이 보인다고 걱정스러운 表情으로 얘기를 한다.

우리나라보다 80倍나 큰 땅에서 아직도 全國土의 6%程度만이 開發된 狀態라고 하는 이 엄청난 濠洲는 人口가 1,500萬이고 人口密度는 km²당 2名이라고 한다. 이中 70%가 都市 및 海岸地帶에 편중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아직도 이 방대한 大陸을 開發할 余地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濠洲의 移民政策 改善에 積極 부딪쳐 본다면 또 韓國人의 손에 依한 資源開發參與 등의 절충과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生覺을 해보면서 문득 1,000萬에 육박하는 서울의 人口와 資源이 없는 우리나라의 4,000萬 人口를 보다더 效率的인 方向으로 國力化할 수 있는 方途는 없는 것일까 하고 獨白을 해본다.

비록 짧은 期間의 訪問日程이었지만 보고 느

건물이 많았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Sydney 港의 印象을 간직한채 호주를 떠나 다음 目的地로 向한다.



泰國의 首都 曼谷에 착륙하니 저녁 6時30分이다. 空港이 어떻게나 붐비는지 짐을 찾고 出 國手續을 마치니 7時30분이 지난다. 날씨는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저녁인데도 짜증스러울 정도로 무덥다. 듣기에는 지금이 乾期로서 타피오카收獲에는 가장 좋은 철이라고 했는데 비가 오락가락하다가가는 천둥과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 이상氣候인것 같다. 호텔에 到着하여 check in을 마치고 나니 저녁 9時가 넘는다. 저녁食事を 마치고 明日부터의 訪問計劃을 確認하고 必要한 準備를 마치니 波勞가 엄습한다. 飛行機로 長距離를 날은다는 것이 肉體的인 것보다는 精神的인 波勞를 느끼게 하는 것 같다. 渴症을 달래기 위해 飲料를 찾아보니 冷藏庫에 泰國產麥酒가 있다. Singer Beer와 Klostar Beer 두가지가 있는데 Singer Beer는 알콜 含有量이 10%라고 적혀 있다. 麥酒로서는 보기드물게 높은 알콜 含有量이다. 地政學的의 여건이 오랜 歷史의 흐름 속에서 民族固有의 傳統과 性格을 特徵지우고 衣食住라는 人間基本의 生存屬性을 規範지우는 것이며 특히 이중에서도 먹는 것 即, 식단이 사람들의 기호음료의 맛을 決定 짓는 것이라면 麥酒의 alcohol度数가 짜릿할 정도로 強하게 혀끝을 刺戟하는것을 一般的으로 좋아하는 것이 泰國사람들이 엄청나게 매운 음식 嗜好와 比較的 短身이면서 性格이 強하고 急한 것 等과 無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生覺을 해본다. 여하튼 Singer Beer 한병을 목마르다고 우리나라 麥酒를 마시듯 꼭 한번에 컵을 비우다가는 즐지에 알팔팔해지기 십상이다. 다음날은 일찍 일어나서 채비를 마치고 農産部를 訪

問했다. 農産長官과는 水害地區視察등의 바쁜 事情때문에 人事만 나누고 次官과 만나 얘기를 나누었다. 명함을 交換하고 英文으로 된 職함을 보니 Permanent Secretary Dr. Talong 이라고 되어 있다. 公職에도 政治的인 人物과 非政治的인 人物이 있다고 들었는데 바로 Dr. Talong 같은 사람이 순수한 行政要員인 것 같다. 의례적인 人事가 끝나고 茶를 나누면서 얘기가 本論에 접어들자 性急하게 今年度分 tapioca chip 4萬톤을 今年內에 泰國에서 실어가도록 協助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現在 船積이 늦어지고 있는 2次分도 兩天으로 十月中에는 出荷가 어렵게 보이니 이 問題는 두고 봐야할 것이라고 答하고 泰國產 tapioca chip의 質의 向上에 對한 얘기를 꺼냈다. 수행 배석중인 MOF 農産局長이 質向上을 위한 現實 여건의 어려움을 說明한다. 現地事情은 영세한 農家에서 栽培되어 收獲되는 tapioca가 또한 영세한 中間商人들에게 넘어가서 여기서 乾燥되고 chip으로 만들어지며 이러한 一連의 過程에서 모래라든가 나무줄거리가 除去되는 것은 그들의 利解關係와 이때까지 作業을 계속해오던 塔성등으로 미루어보아 官의 努力만으로는 相當한 時間이 걸릴것이라는 얘기이다. 勿論 当局이 質의 改善을 위한 努力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가 EC의 몇 個國을 除外하고는 가장 큰 顧客이라는 點을 強調하고 계속적으로 韓·泰間의 經濟的紐帶가 公고해지기를 希望한다는 人事를 마치고 Dr. Talong과 헤어졌다. 農産部를 떠나 泰國 tapioca 協會會長을 訪問했다. 會長 Mr. Wanglee는 體軀가 크고 性格도 호탕한것 같은 印象을 준다. 大部分의 財力은 中國系의 商人들이 掌握하고 있다고 들었으며 Wanglee 역시 中國系의 그중의 한사람이라고 한다. 얘기가 tapioca chip의 質의 向上問題에 이르자 그는 첫째는 自由貿易이고, 둘째는 合資會社等을 設立하는 것이 質의 問題를 解決하는 지름길인

라고 얘기한다. 卽 自由競争을 하면 質 나쁜 것은 사지도 않을 것이고 또 팔지도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고 合資会社를 設立한다면 現地에 酒精工場을 세워 最上의 原料를 廉價로 購入 酒精을 만들어 한국으로 輸送하게 되기 때문에 質의 문제는 自動的으로 解消될 것이라는 見解이다. 官의 立場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立場이 이렇게 틀리는 것인가 하고 느끼면서 그가 곧 서울을 訪問한다는 얘기를 듣고 本人의 旅程이 그의 訪韓과 엇갈리어 만나지 못하게 되어있음을 未安하게 生覺한다는 人事로 Wanglee와 作別하고 tapioca 協會를 떠났다. 晝食을 마친后 MOF를 訪問하여 兪長 Mr. Bullin을 만나 얘기를 나누었다. MOF는 政府의 公機構이며 Mr. Bullin은 政治的으로는 野黨의 人物이라고 한다.

얘기의 焦點은 역시 tapioca chip의 質的 向上에 關한 것이다. 그의 意見은 韓國商人들이 農場이나 부두부근에 사이로를 대여하고 質 좋은 tapioca를 사서 分類 貯藏하면 適期에 良質의 原料를 獲得, 供給할수 있을 것이 아니냐하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 그거야 當身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느냐하고 反問을 했더니 韓國商社가 한다면 사이로를 값싸게 빌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說明을 한다. 그는 또한 MOF 傘下에 tapioca 協會를 두고 協會傘下에 各 商社를 둔다면 質의 문제는 改善이 될 것이라고 自己見解를 말한다.

Counter trade와 free trade의 長短을 어떻게 보느냐하고 質問을 던져봤더니 MOF가 中間에서 調整하면 둘다 비슷한 것이 아니냐 하고 슬쩍 회피하는 것이 現在 그의 立場은 中間地帶에 있는 것같은 냄새를 풍긴다. 異例의 인 暴雨로 農事의 問題가 深刻한지 얘기 중에도 農産部와 電話가 자주오고 가는 것이 MOF로서도 지금 걱정이 많은 것 같아 원만한 線에서 얘기를 마무리짓고 作別人事를 하고 MOF를 뒤로 한다. 다음날은 計劃에 따라 南部에 있



〈Tapioca 野積場〉

는 tapioca 農場과 野積場, 그리고 hip 으로 만드는 小規模의 工場들을 둘러보았다. 아침에 뿌리던 비가 그치더니 활짝 개인 날씨가 되니 쨍쨍한 太陽이 내려쬐인다. 그러다가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 벼락과 천둥을 同伴한 暴雨가 쏟아진다. 한마디로 말해 大端히 번덕스러운 날씨다. 우선 野積場부터 둘러본다.

天幕기지같은 것으로 덮어둔 것을 재켜서 속에 쌓아둔 tapioca를 보니 역시 나무부분과 모래가 많이 섞여있다. 이러한 狀態의 tapioca가 그대로 crusher에 들어가 부서지니 fibre와 sand가 除去될 수는 없는 것 같다. pellet을 보았더니 이것역시 chip에서 pellet으로 만드는 工程만 거치는 것으로 模樣만 規格대로 다듬어진것이지 內容은 chip과 마찬가지로 fibre와 sand가 그대로 含有된 것이 틀림없었다. 野積場의 規模나 工場의 規模도 아주 적은 營生性을 免치 못한 形便이니 이것이 供給業者에게 納品되었을 때 우리가 現實的으로 안고 있는 質의 問題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느낄수 있었다. 밭에서나 野積場 또는 工場세 군데중 어느 한곳에서라도 한번 fibre와 sand를 추리는 過程이 있어야만할텐데 아무데서도 이러한 過程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問題가 되는 것이라고 生覺이 됐다. 嚴密하게 따진다면 밭에서 쟁매 나무뿌리는 除去되어야하

고 乾燥시킬때 그리고 crush 直前に 모래를 털어내는 裝置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人件費, 그리고 무게의 減少等으로 困한 不利益을 補償하는 方法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問題解決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tapioca를 栽培하는 農場으로 向한다. 直接밭에 들어가서 作況을 살펴보았다.

Tapioca가 고구마와 비슷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보통사람키의 3倍정도나 되는 나무뿌리에 매달려있는 根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기前에는 実感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나무라고 느꼈다. Tapioca를 직접 손으로 뽑아보니 제법 굵은알이 3~4個 딸려나온다.



〈Tapioca 栽培農場〉

EC에 輸出하는 物量에 비해 우리나라에 供給되는 chip이 적은 量이기는 하지만 우리로서는 酒精原料로서 相当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tapioca chip의 質의 向上策은 앞으로 계속 接觸과 協助, 그리고 双方의 努力으로 改善이 있어야할 것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農場을 떠났다.



日本에서는 時間關係上 東京市内에 위치한 日本蒸溜酒酒造組合中央会和 新energy 綜合開

發機構 alcohol事業本部(以下NEDO로 略함) 두곳만을 訪問하였다. 日本의 酒精製造分野는 크게 分類하여 專売 alcohol工業과 酒類用 alcohol製造로 나누어져 있으며 NEDO의 alcohol事業本部에서 酒類를 除外한 化学工業用, 飲食料品工業用, 其他 等の alcohol을 製造하며 蒸溜酒酒造組合中央会에서는 酒類用 alcohol 製造業務를 管掌하고 있다. 그리고 酒精原料는 国内産 고구마를 使用하고 있으나 絶對量이 不足하기 때문에 거의 80%를 糖蜜과 粗酒精을 輸入 이에 充當하고 있는 實情이다. 日本到着 다음날인 10月 19日 아침 일찍 hotel 을 出發하여 東京中央区日本橋에 있는 蒸溜酒酒造組合中央会를 찾았다. 專務理事 坪倉氏와 만나 人事를 마치고 茶를 나누면서 일반적인 얘기로 말이 오고가는데 坪倉氏가 말하기를 自己는 서울高等學校 出身이며 一年에 한번 同窓會가 서울과 東京에서 번갈아가면서 열리는 데 서울에 한번 訪問하려고 數次 努力을 했었으나 번번히 바쁜 業務로 因해 機會를 잡지 못했었다고 아쉽게 여긴다는 얘기를 한다. 그의 年令으로보아 解放以前에 卒業을 했을것 같은데 45년이 지난 지금도 當時의 서울거리 건물 등을 記憶하고 있는 것이 역시 젊을때의 記憶은 그리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本論에 들어가 日本의 酒精製造現況 및 酒類에 對한 一般의인 事項을 알아보았다. 酒精製造業體는 免許業體로서 37個社가 있고 大部分이 自體의 酒精으로 酒類를 製造하고 있으며 이 37個社가 製造하는 飲用的 100% alcohol製成현황은 1981年 統計가 225,115 kℓ 라고 한다. 83年度는 大略 81年度 數値에 6%增으로 보면 된다고 말한다.

이 酒精은 日本酒(清酒)가 거의 半을 使用하며 위스키, 燒酎, 其他酒가 나머지 半을 쓴다고 하니 아무리 西歐文明이 밀어닥쳐 위스키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도 아직은 日本人들의 기호가 清酒쪽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燒酎의 消費가 가장 크다고 했더니 日本도 近年에 와서는 燒酎의 消費가 增加하고 있으며 燒酎를 물에 타서 먹는 簡易式 bar가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그 原因이 무엇이나 하고 물었더니 첫째가 經濟的 好況의 后退요, 둘째가 젊은층의 기호의 變化 그리고 셋째가 燒酎의 質的 向上으로 본다고 答한다. 日本의 燒酎는 甲 乙로 나누어져 있고 甲은 連續式 蒸溜酒이고 乙은 單式 蒸溜酒라고 한다. alcohol 度数는 35° 25° 20°의 세 가지이며 製成狀況은 甲이 142,950kℓ, 乙이 134,009kℓ로서 總 276,959kℓ(81年 統計)이고 이것 역시 83年度는 5割增으로 보면 큰 差가 없을 것이라고 說明한다. 輸入原料에 對해 알아보았더니 糖蜜이 15萬톤程度이고 粗酒精이 205,000kℓ程度이며 主로 粗酒精을 輸入하는 理由가 公害問題가 시끄럽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장 큰 輸入先은 Brazil이고 이중 濠洲의 CSR도 約2,500kℓ정도를 供給하고 있다고 한다. 万若의 경우 37個 會員社 가운데 年間配定量을 超過하여 더 쓰고 싶다고 하면 더 쓸 수도 있지만 이 境遇는 엄청난 關稅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年初에 指定된 物量外에는 안쓰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이라고 한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酒類工業 實態는 거의 모르고 있으면서 先進外國의 事情에는 精通한 것 같아 앞으로 韓國과의 酒類工業에 關한 情報交流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의 利益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質問에 그들 역시 將次的 發展을 위해 漸進的인 交流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낀다는 말을 한다. 1時間程度의 訪問을 마치고 다음 訪問을 위해 蒸溜酒 酒造組合中央會를 떠났다. NEDO로 가는 도중 簡單한 晝食을 마치고 港區에 있는 NEDO alcohol 事業本部를 찾았다. 業務部長 瀧口氏와 人事를 마치고 準備된 會議室에서 現況說明을 듣고 서로 알고 싶은 것을 묻고 答하는 形式으로 會議가 進行됐다.



(NEDO Alcohol 事業本部에서의 會議場面)

NEDO의 alcohol 事業本部는 日本 alcohol 專賣法에 依한 工業用 alcohol의 製造 및 여기에 關한 附帶事業을 推進하는 機構로서 全國에 7個의 工場을 가지고 年間 約 10萬kℓ의 alcohol을 生産하고 있다고 한다. NEDO는 또한 日本의 石油代替energy의 中核의 推進母體로서 1980年 10월에 設立된 特殊法人이며 石炭, 太陽, 地熱 energy 등의 新energy의 技術開發에 關한 事業도 推進中에 있다고 한다. 原料는 고구마, 옥수수 등의 澱粉質과 糖蜜 및 粗酒精 등의 糖質을 쓰고 있으며 製造되는 alcohol은 99°의 1級과 95° 特級 그리고 95° 1級の 세 種類로 分類되어 全量이 政府에 納付되고 이것이 政府로부터 需要에 供給된다고 한다.

用途는 液体洗劑, 塗料, 硝化纖維素, 化粧品, 香料, 비누 등의 化學工業用 52%外에 食酢, 食品防腐用, 미림 등 飲食品工業用 29% 其他 등으로 分類使用되고 있다. 原料문제에서 取率이 좋은 tapioca를 日本이 使用하지 않는 理由를 물었더니 農産政策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끝으로 相互關心事인 公害문제에 對해 얘기를 나누어 보았다. 日本 역시 澱粉質原料와 糖蜜 등은 排水處理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한다. 海洋投棄도 許容되고 있으나 50海里밖의 大洋에 그것도 政府가 指定

한 場所에만 버려야하니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이거나마도 태우는 方法보다는 싸게 먹히니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느 나라이건 將次 폐기물처리는 深刻한 公害問題로 提起될 것이며 이것이 生産原価를 圧迫하는 要因으로 作用할 것이기 때문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이 分野에 對한 不斷한 研究과 努力이 集中되어야 할 것이라고 느꼈다. 特히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는 입지적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問題解決을 위한 움직임도 相互緊密한 情報交流과 共同努力이 서로의 利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고 生覺해 본다. 많은 量의 酒精原料를 輸入함으로써 外貨를 소비하고 이것을 加工處理하는에서 생기는 폐기물이 環境汚染의 問題로 提起되는 오늘의 現實이 우리나라와 日本이 안고 있는 酒類工業 一般의 問題點들과 통털어 比較해볼때 共通點이나 類似한 面이 많다는 것을 느꼈으며 將次 서로의 發展을 위한 交換訪問 등의 交流가 必要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면서 NEDO alcohol 事業本部の 訪問을 마치고 歸路에 올랐다.

— 맺 는 말 —

술이란 앞으로 人類가 地球에서 삶을 存続하는限 우리와 더불어 共存하는 基호飲料임에는 異論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地域마다 各樣各색의 술을 製成發展시켜 오늘에 이르렀지만 바로 이 술의 原料는 人間이 食用으로 할 수 있는 穀物 및 果實이기 때문에 將次 술의 原料獲得에 關한 問題는 人口增加 및 食糧不足의 問題와 더불어 漸次 어려운 여건이 造成될 것이 아닌가 하는 憂慮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生覺되는 것이다. 特히 今般 巡訪한 濠洲와 泰國이 酒精原料의 寶庫로서 앞으로는 더욱 各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져 부럽게 여겨지는 것은 어쩔수 없는 心境이라 하겠다. 國土는 制限되고 主穀 및 其他 食用作物의 自給自足도 힘겨운 우리나라의 形便에서 앞으로 低廉하고 質좋은 酒精原料를 需要에 따라 차질없이 獲得供給하려면 미리미리 이 問題에 對한 多角的인 研究과 檢討가 先行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切實하게 느끼면서 巡訪의 所感을 맺는다.